

초반 부상 악재 '마운드 붕괴'...챔프 몰락 가속화

KIA 2025 시즌결산

(1) 투수

연쇄 이탈·불펜 과부하 도미노...네일·올러로 버티기엔 역부족 '끝내 닫지 못한 뒷문' 정해영·조상우 난조, 팀 성적 급락 직격탄 '위기를 기회로' 김도현·김태형·성영탁의 재발견 '희망의 불씨'



에이스는 있었지만, 마무리는 없었다. 올 시즌 KIA 타이거즈의 가장 큰 약점은 마운드였다.

균형을 잃은 투수진은 끝내 팀 전체를 흔들었다. 그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막아내는 힘이 부족했다'로 요약된다.

팀 평균자책점(ERA)은 4.66, WHIP 1.43으로 리그 7위. 불펜과 수비는 초반부터 흔들렸고, 선발의 버팀목도 오래가지 못했다.

시즌 초반부터 이어진 부상 악재는 마운드 붕괴의 서막이었다.

4월에 지난해 우승의 한 축이던 박도규가 팔꿈치 수술로 이탈했고, 5월엔 선발 황동화가 교통사고로 빠졌다.

7월에는 5선발 운영철마저 팔꿈치 통증으로 시즌을 조기 마감했다. 연쇄 이탈은 선발 로테이션 불안과 불펜 과부하를 가중시켰다.

시즌 초반 선발진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외국인 원투펀치와 김도현이 중심을 잡으며 팀을 이끌었다.

네일과 올러는 전반기 팀 45승 중 19승을 합작하며 제 몫을 다했다. 김도현도 3점대 ERA로 뒤를 받치며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쳤다.

하지만 국내 투수진의 편차는 컸다. 양현종은 구속·구위 저하로 예전의 위력을 잃었고, 운영철도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그래도 전반기까지는 앞분이 일정 수준의 안정감을 유지했다.

후반기로 접어들며 균열이 커졌다. 올러가 부상으로 잠시 이탈했고, 이의리는 복귀 후 제구 난조에 시달렸다. 김도현의 피로 누적도 뚜렷했다. 6월 팀 ERA 3.47에서 7월 이후 5점대로 급등하며 하락 곡선을 그렸다. 9월엔 네일과 김도현의 부상까지 더해지며 마운드 중심이 무너졌다. 대체 투수들이 버텼지만, 사실상 경쟁력을 잃었다. 그 와중에 신인 김태형의 투혼이 작은 희망이 됐다.

반면 불펜은 시즌 내내 침체에 빠졌다. 최종 ERA 5.22로 리그 하위권. 시즌 초반부터 제구 난조와 투구 효율 저하가 이어졌다. 선발이 잘 던져도 승부가 뒤집히는 일이 잦았다. 그 여파는 6월을 제외하면 팀 성적 하락으로 직결됐다. 무엇보다 마무리 정해영의 부진이 뼈아팠다. ERA 3.79, 피안타율 0.299, WHIP 1.51, 볼넷세이브 7회(리그 2위). 세이브는 쌓였지만, 동시에 충격적인 역전패의 밭도 많았다. 승리의 수호신은 어느새 경기 막판 변수가 됐다.



네일

셋업맨 조상우도 기복 속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하위 계투진은 6-10점대 ERA로 주전과의 격차가 컸다. 주전 의존도가 커지면서 필승조 4명이 불펜 이닝의 절반 가까이를 떠안았다. 다만, 신예 성영탁만이 분전하며 불펜 과부하 속 숨통을 틔웠다.

KIA 마운드는 홈과 원정에서도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홈 ERA 4.11은 준수했지만, 원정 ERA는 5.23까지 치솟았다. 특히 원정 불펜은 6.09로 리그 최하위다. 득점권 ERA 역시 13점대로 극심



김도현

한 약점을 드러냈다.

여기에 수비 불안이 기름을 부었다. 팀 실책 123개로 2년 연속 리그 최다. 수비율 0.97로 최하위다. 그중 외야의 Range RAA(수비 관련 득점 기여도)는 14.14로 리그 최하위에 그쳤다. 이는 리그 평균보다 약 14점의 실점을 더 허용한 셈이다. 좁은 수비 범위와 잦은 실수가 겹치며 투수진의 부담을 커졌다. 경기 흐름을 바꾸는 힘도 사라졌다.

결국 KIA 마운드는 균형을 잃은 채 시즌을 마



성영탁

(KIA 타이거즈 제공)

쳤다. 선발이 후반기에 꾸준함을 잃었고, 뒷문은 끝내 닫지 않았다. 불펜 난조와 수비 불안이 팀 전체의 리듬을 무너뜨렸다.

2026시즌의 과제는 명확하다. 마무리와 기본 수비의 회복이다. 로테이션 운용도 재정비가 불가피하다. 국내 투수진의 기복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외국인 듀오의 거취까지 안갯속이다. 균형을 잃은 마운드를 되찾는 일, 그것이 KIA의 새 시즌이 풀어야 할 첫 숙제다.

/주홍철 기자



지난 11일 열린 AI페퍼스 미디어데이에서 장소연 감독, 박정아, 고예림, 조이 웨더링턴, 시마무라 하루요가 새 시즌 선전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최하위 꼬리표 떼고 ‘봄 배구’ 간다”

AI페퍼스, 2025-2026 시즌 필승 출사표

매 라운드 3승, 전체 승률 5할, 거기에 2승을 더해 20승 목표 조이·시마무라 활약 기대, 베테랑들 시너지 효과 돌풍 기대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향한 여자프로배구 AI페퍼스가 봄 배구를 목표로 출사표를 던졌다.

AI페퍼스는 지난 11일 오전 10시30분 서구 염주체육관 국민생활관 세미나실에서 김동연 단장, 장소연 감독을 비롯해 주장 고예림, 박정아, 조이 웨더링턴, 시마무라 하루요가 참석한 가운데 미디어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2025-2026 V리그를 앞둔 장소연 감독은 “이번 시즌 외국인 선수로 조이와 시마무라가 합류했고, FA로 고예림도 영입했다”며 “코트에서 베테랑 선수들이 시너지를 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즌은 최하위라는 꼬리표를 뽐수 있는 시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저 또한 기대가 크고 선수들도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잘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I페퍼스는 지난 시즌 최하위를 기록했지

만 전 구단 상대 승리를 통한 11승을 거두며 창단 후 최고 성적에 거뒀다.

장 감독은 “지난 시즌 전·후반기 부진이 있었다. 선수들의 뒷심 부족에 대한 보완도 했고 목표했던 부분은 달성했다. 가져야 할 자신도 얻었고 수확이 있었다. 승리하는 맛을 알았다.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탈출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이번 시즌 AI페퍼스 유니폼을 입은 고예림은 “AI페퍼스와 첫 번째 시즌이다. 훌륭한 선수들과 함께 훈련 중이다. 새롭게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며 “부담도 없지 않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코트에서 보여줘야 한다는 동기부여로 작용하고 있다. 긴장도 되고 설렌다. 몸 상태도 더 좋아졌다. 기대감이 더 크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AI페퍼스에서 세번째 시즌을 맞는 토종 에이스 박정아는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 공격력이 좋은 외국인선수들과

리시브에 안정감있는 고예림의 합류로 팀워크가 더 탄탄해진 것 같다. 보다 더 공격적인 플레이로 시즌을 치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흥국생명과의 정권장이라는 ‘절대 2강’이 사라진 올 시즌 AI페퍼스는 끝내 탈출과 함께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다. 봄 배구 진출이다.

장 감독은 “매 라운드마다 3승씩, 전체 승률 5할이 1차 목표다. 거기에 2승을 더해 20승을 목표로 달려가겠다”며 “봄 배구를 꿈 아닌 현실로 만드겠다”고 밝혔다.

끝내 탈출을 선언했지만, 과제도 많다. AI페퍼스는 지난 9월에 열린 컵대회에서도 조별리그에서 3전 전패로 탈락했다.

장 감독은 “외국인 선수들이 뛰지 못해 많은 것을 보여드리지 못한 아쉬움은 남지만 팀의 방향성 보완에 대한 방법을 찾는 계기가 됐다.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준비했던 완전체로 경기에 나선다면 올 시즌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단장은 “창단 후 도전과 변화의 흐름 속에 팬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됐다. 올 시즌 선수단 모두 팬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준다는 각오로 열심히 준비했다. 팬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AI페퍼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KIA 등 국내 8팀+해외 3팀 참가 울산-KBO Fall League 내일 개막

국내의 유망주들의 성장 무대인 '2025 울산-KBO Fall League'가 오는 14일 막을 올린다. 이번 대회는 울산·김해·창원·거창 등 영남권 4개 구장에서 펼쳐진다.

지난해에 첫 걸음을 댄 '울산-KBO Fall League'는 국내는 물론 해외팀들이 참가해 젊은 선수들의 성장과 국제 교류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무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KIA, 삼성, LG, 롯데, NC, 고양, 독립리그 울산, 대학 선발팀 등 8개팀이 참가한다. 해외팀으로는 호주 멜버른 에이스, 일본 독립리그 선발팀, 중국 CBA 소속 장쑤 휴즈 홀츠가 참가해 총 11개 팀이 14일부터 11월1일까지 울산 문수구장과 김해 상동구장, 창원 마산구장, 거창 KBO 야구센터에서 약 3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이번 울산-KBO Fall League는 경기 외에도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울산 지역 리틀야구단을 대상으로 유소년 클리닉을 개최하고, 해외 팀들은 울산 지역 명소, 관광지 등을 방문해 한국 문화와 먹거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울산-KBO Fall League는 팀당 13경기씩 예선 6경기를 치르며, 결선 라운드를 거쳐 최종 우승팀에게는 2천만원, 준우승팀에는 1천만원 상금을 수여한다. 예선은 4개 구장에서 하루 최대 5경기씩 열리며, 울산 문수구장의 주요 경기는 tvN SPORTS, TVING, KBO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다. 울산 문수구장에서 열리는 결선 라운드(10월31일-11월1일) 역시 동일하게 중계된다.

울산-KBO Fall League는 다양한 선수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엔트리 없이 리그가 진행되며, 지난 9월 개최된 2025 신인 드래프트에 지명된 내년 신인 선수들도 참가할 수 있다. 우천 등으로 취소된 경기는 예비일이 있는 경기 외에는 재편성되지 않는다.

KBO는 지난해 울산-KBO Fall League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반으로 올해 리그를 대폭 확대했으며, 향후에도 국내외 다양한 팀과 유망주들이 참가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도 강화할 계획이다.

/주홍철 기자

신진서, 3년 연속 란커배 결승 진출

당이페이와 우승 격돌

신진서 9단이 3년 연속 란커배 결승에 올랐다.

신진서는 11일 중국 저장성 취저우에서 열린 제3회 취저우 란커배 세계바둑오픈전 4강에서 중국 판인 8단에게 176수 만에 백 불계승했다.

이로써 신진서는 1회 대회부터 3연속 결승 무대에 올랐다.

신진서는 1회 대회 결승에서 중국 구쯔하오 9단에게 1-2로 역전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하지만 지난해 2회 대회에서 가진 구쯔하오와 리탄매치에서는 2-0으로 완승을 거두며 정상에 올랐다.

이날 4강에서 신진서는 하변 전투에서 유리한 형세를 만든 뒤 상중양의 거대한 흑 대마를 공격해 판인의 항복을 받아냈다.

다른 4강전에서는 중국의 당이페이 9단이 리친정 9단을 꺾고 결승에 올랐다.

신진서는 당이페이와 상대 전적에서 최근 4연승을 거두는 등 9승 5패로 앞서 있다.

란커배 결승 1국은 12일, 2국과 3국은 14·15일 열린다.

란커배 우승 상금은 180만원(약 3억4천200만원), 준우승 상금은 60만원(약 1억1천400만원)이다. 중국 바둑 규정을 적용해 팀은 7집 반이며,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에 1분 초읽기 5회다.

/연합뉴스